「언어연구」, 제18권(2001), 1~24

핵어중심 구구조 문법에서의 격 연구

임 경 섭
(동신대학교)

Lim, Kyung-Sup. 2000. A Study of Case i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Linguistic Research* 18, 1-24. This paper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case theory i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Following Przepiórkowski (1999), I will assume the dichotomy between the structural case, assigned through general grammatical rules, and the lexical case, assigned by particular heads. I adopt here the insight of Meurers (1999b) and assume the priority of raising information over realization information in assigning case. Instead of marking each element of ARG-ST as [REALIZED +/-], I will mark it as [RAISED +/-]: an element of ARG-ST is [RAISED +] if and only if it occurs also on a higher ARG-ST. Case will now be assigned only to [RAISED -] arguments. This paper sketches the current issues in the Korean case theory. **(Dongshin University)**

1. 서론

이 논문은 핵어중심 구구조 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에서 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고려할 점은 크게 2 가지가 있다. 격을 다른 범주들과 어떻게 구별하느냐의 격의 외적 범위(external delimitation)와 주어진 언어에서 격의 숫자와 정체성(identity)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격의 내적 범위(internal delimitation)가 있다. 또 격을 분류할 때 고려할 점은 격이 의미적 개체인지 아니면 순수한 통사적 개체인지 하는 점과 격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또 격부여의 양식에 있어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특정한 문법 기능에 기초를 두는 기능적(functional) 방법, 특정한 어휘 항목에 의하여 부여하는 어휘적(lexical) 방법, 의미 정보에 기초하여 부여하는 의미적(semantic) 방법 그리고 구조의 위치에 기초하여 부여하는 형상적(configurational) 방법 등이 있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격에 관한 선행 연구로서 지배 결속 이론, 어휘 기능 문법, 핵어중심 구구조 문법에서의 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격 부여의 위치 등을 제시하며 비형상적 격 이론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격 연구에 대한 최근의 동향을 살펴본다.

2. 격에 관한 선행 연구

격은 모든 자연언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 언어에 나타나는 격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시된다. 라틴어를 비롯한 인구어에서는 명사의 굴절 형태로 나타나고, 한국어와 같은 첨가어에서는 명사에 부착되는 조사의 형태로 표시된다.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대명사에서만 격이 나타날 뿐, 일반 명사들에는 격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각 언어 이론마다 제각기 각각의 격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격에 대한 선행 연구로서 지배 결속(Government and Binding) 이론과 어휘 기능 문법(Lexical Functional Grammar)과 핵어중심 구구조 문법에서의 격 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지배 결속 이론에서의 격 이론

Chomsky (1980, 1986a)는 격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 유의하여 격을 추상격(abstract case)과 형태격(morphological case)으로 구분하였다. 지배 결속 이론에서의 추상격은 기능범주인 시제와 굴절소 뿐만 아니라 동사나 전치사와 같은 [-N] 범주가 명사구에 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Chomsky가 제시한 격 이론과 격에 관한 제약은 아래와 같다.

(1) a. NPs get the nominative Case when governed by Tense;
b. NPs get the objective Case when governed by verbs;
c. NPs get the oblique Case when governed by prepositions and certain ('marked') verbs

(2) Case Filter
Every phonetically realized NP must be assigned (abstract) Case.

지배 결속 이론에서의 격 이론은 통사구조에서 모든 명사구 논항은 격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격여과(case filter)를 원칙으로 격부여의 조건과 이의

형태적 실현을 규정하는 원리이다.

지배 결속 이론에서의 격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a. Mary persuaded John [PRO to leave].
b. Mary persuaded John [that she will leave].
c. *Mary persuaded John [she to leave].

예문 (3a)에서 PRO는 격이 없고, 예문 (3b)에서 *that*절 속의 주어 *she*는 조동사 *will*의 시제에 의하여 주격을 부여받았고, 예문 (3c)에서 괄호 속의 *she*는 지배범주가 없기 때문에 격표지된 명사가 될 수 없다.

Chomsky (1986a)는 격을 구조격(structural case)과 고유격(inherent case)으로 구분하였다. 구조격은 S-구조에서 부여되고, 동사와 한정 Infl (Tense)에 의하여 부여되고, 목적격과 주격으로 실현된다. 반면에 고유격은 D-구조에서 부여되고, 전치사, 명사, 형용사에 의하여 부여되고, 전치사에 의하여 부여되는 사격(oblique case)과 명사와 형용사에 의하여 부여되는 소유격(genitive)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격부여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왜 동사만이 구조격을 부여하는 유일한 어휘 범주이고 명사와 형용사는 항상 고유격을 부여하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이 구조격과 고유격의 분류가 순수히 이론 내적과 반대가 되는 경험적 반영인가 하는 점이다.

이상의 분석의 공통점은 통사적 격이란 형상적(configurational) 현상으로 격이 형상적 위치에 기초하여 명사구에 부여된다는 가설이다. 또 다른 특성은 순전히 통사적 형상에 기초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구조격과 특정한 어휘 항목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고유격 또는 어휘격 사이에는 구분이 있다는 점이다.

2.2 어휘 기능 문법에서의 격 이론

Neidle (1982)은 격부여를 예측 가능한 구조격부여와 불규칙한 어휘격부여로 구분하였다. 어휘격부여는 특정한 어휘항목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특이하게 부여되고 어떤 통사적 절차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다. 반면에 구조격부여는 명사구의 문법적 기능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동사의 목적어들은 수의적으로 대격(accusative case)이 부여된다. 만약 동사가 어휘적으로 목적어에 격을 부여한다면 이런 수의적 구조격부여 규칙은 자질 CASE가 2개의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반면에 동사가 어휘격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규칙은 적용할 수 있다. 동사가 어휘격을 부여한다면

목적어는 대격을 갖게 된다.

Zaenen and Maling (1983)과 Zaenen *et al* (1985)은 어휘격은 특정한 의미역(thematic role)에 의하여 부여되고, 구조격은 아래의 당연(default) 규칙에 의하여 문법적 기능의 수준에서 부여된다고 가정하였다.

(4) Default Case Marking (Universal)
The highest available Grammatical Function is assigned NOM case, the next highest ACC.

최상위 문법기능에는 주격이 부여되고 차상위 문법기능에는 대격이 부여된다. 어휘격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문법기능에 위 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이 당연 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SUBJ > OBJ > OBJ2 와 같은 문법 기능 위계(grammatical functional hierarchy)가 전제되어야 한다. 당연 규칙과 문법 기능 위계에 의하면 주어가 어휘격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어에 주격이 부여되지만, 주어가 이미 어휘격을 받은 경우에는 목적어에 주격이 부여된다.

2.3 핵어중심 구구조 문법에서의 격 이론

Pollard and Sag (1994)는 HPSG에는 별개의 격 이론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주격(nominative case) 부여는 한정동사의 어휘목록 내에서 직접 발생하고 비한정 동사의 주어 SUBCAT 요소는 CASE 값을 명세하지 않는다.

Pollard (1994)는 독일어 수동태구문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조격과 어휘격의 이분법을 이용하였다. 그는 GB를 따라 어휘격은 특정한 어휘항목에 의하여 그의 의존물에 약간 특이하게 부여되고 반면에 구조격은 일반 문법 원리에 의하여 부여된다고 가정하였다.

(5) Structural Principle of Structural Case Resolution
i. An NP[str] is assigned nominative case if its sign realization is as the subject of a phrase.
ii. An NP[str] is assigned accusative case if its sign realization is not as the subject of a phrase.

(6) a. Sie hat ihm den Wagen gegeben.
she$_{nom}$ AUX he$_{dat}$ the$_{acc}$ car given
'She gave him the car.'

b. Der Wagen ist ihm gegeben worden.
the$_{nom}$ car AUX he$_{dat}$ given AUX
'The car was given to him.'

*gegeben*의 직접목적어는 예문 (6a)에서 분사구의 목적어로 실현되고 원리 (5ii)에 의하여 대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예문 (6b)에서는 목적어가 수동태가 되어 절의 주어로 실현되고 원리 (5i)에 의하여 주격이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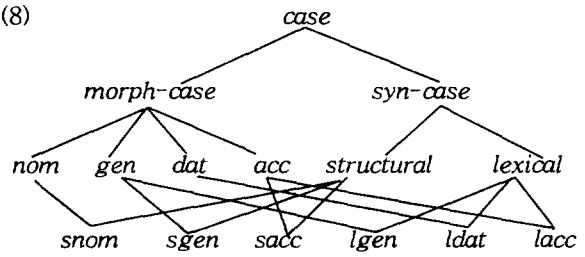
Heinz and Matiasek (1994)은 HPSG의 격부여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였다. 그들은 논항의 형태격의 값이 통사적 환경과 더불어 변화한다면 이 논항에 구조격이 부여된다고 가정하였다.

(7) a. Der Mann unterstutzt den Installateur.
the man$_{nom}$ supports the plumber$_{acc}$
'The man is supporting the plumber.'
b. Der Installateur wird unterstutzt.
the plumber$_{nom}$ AUX supported
'The plumber is supported.'
c. das Unterstutzen des Installateur
the supporting the plumber$_{gen}$
'the support for/from the plumber'

예문 (7a)에서 능동의 *unterstutzt*의 직접목적어는 대격을 가지고, 수동태 (7b)에서는 주격을 가지며, 탈동사류 명사구 (7c)에서는 소유격을 갖는다.

독일어의 형태격(nominative, accusative, genitive, dative)은 구조격(nominative, accusative, genitive)과 어휘격(dative)으로 나뉜다. 그러나 대격과 소유격도 어휘격이 된다. 그들은 독일어의 격 위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8)



어휘격은 통사적 환경에 의하여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형태적 실현은 특정한 동사의 어휘항목에서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다. 반면에 구조격은 통사론에서만 형태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어휘부에서 고정될 수 없다. 어휘항목은 특정한 형태적 실현을 명세하지 않으면서 단지 그들의 논항이 구조적이어야 함을 명세할 뿐이다.

그들은 외부 논항과 내부 논항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격원리를 제안하였다.

(9) Case Principle (for German):

In a *head-complement-structure* whose head has category

verb[fin]	the external argument has a CASE value of *snom,*
verb	the internal argument has a CASE value of *sacc,*
noun	the internal argument has a CASE value of *sgen.*

(10) *Syntactically External Argument ('Subject')*:

If the first element of the SUBCAT list of a sign is an NP[str], it is called the *(syntactically) external argument* of that sign.

(11) *Syntactically Internal Argument ('Direct Object')*:

If the second element of the SUBCAT list of a sign is an NP[str], it is called the *(syntactically) internal argument* of that sign.

격원리의 장소는 *phrase* 이고 DTRS 속성의 핵어-보어구 값을 이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원리는 형상적이다.

유사한 설명방법들을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Yoo (1993)는 인상된 목적어가 주격이나 대격을 취하는 한국어의 ECM 구문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을 다루었다.

(12) a. 메리가 존이 똑똑하다고 믿는다. (Mary believes John to be smart.)

b. 메리가 존을 똑똑하다고 믿는다. (Mary believes John to be smart.)

Yoo (1993)는 이러한 격 선택성이 예문의 구조적 차이점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12a)에서 '존이' 주어로 실현되어 주격을 취하면서 '믿는다'가 절을 하위범주화 한다. 반면에 (12b)에서는 '믿는다'가 인상동사이기 때문에

'존을'이 목적어가 되며 대격을 갖는다.

Yoo (1993)는 구조격과 어휘격의 양분을 채택하고 어간 '믿'과 '똑똑하'의 어휘목록과 한국어 격원리를 제시하였다.

(13) a. '믿' [SUBJ <NP[str]> ; COMPS <S>]

b. '믿' [SUBJ <NP[str]> ; COMPS <[1]NP[str],VP[SUBJ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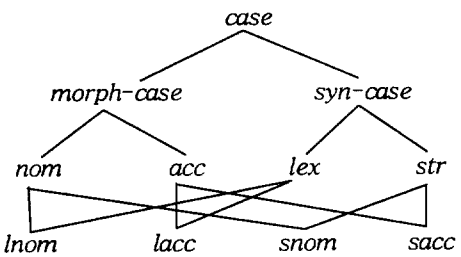
c. '똑똑하' [SUBJ <NP[str]>]

(14) Case Principle (for Korean):

A structural NP which is a daughter of a phrase α is *nom* if it is a SUBJ-DTR of α, and *acc* if it is a COMP-DTR of α.

한국어 감정동사 (심리동사)의 행태에 기초하여, Yoo (1993)는 주격과 대격은 어휘격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격위계를 제안하였다.

(15)



Grover (1995)는 영어에서 모든 격표지는 구조적이라고 가정하고 Pollard and Sag (1994)의 간단한 유형위계를 받아들였다. 이 위계에서 유형 *case*는 2개의 하위유형 *nominative*와 *accusative*를 갖는다. 그러나 Pollard and Sag (1994)과는 달리 모든 격부여는 어휘부가 아니라 통사론에서 이루어진다.

(16) Case Principle (for English):

i. In a feature structure of type *head-comp-struc*, any NPs in the COMPS list of the head daughter are [CASE *acc*].

ii. In a feature structure of type *head-subj-struc*, the NP in the SUBJ list of the head daughter is [CASE *nom*] if the head is

specified as [VFORM *fin*] or [VFORM *base*], and [CASE *acc*] otherwise.

이상의 원리에 의하면 비한정 동사의 주어에 대한 격부여에 대한 설명이 잘 이루어진다.

(17) a. It would be possible for him (*he) to be promoted.
b. It was decided that he (*him) be promoted.
c. Him (*He) being promoted made us all glad.

*head-comp-struc*인 (17a)에서 보문자 *for*의 보어 NP와 VP[inf]에서 보어 NP는 [CASE acc]가 되므로 *he*가 아니라 *him이* 된다. 그러나 만약에 격이 엄밀히 어휘적 현상이라면 비한정 동사는 그들의 주어에 격을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17b)에서 주격을 (17c)에서 대격을 예측할 수 없다. 영어처럼 격이 빈약한 언어에서조차도 격부여는 어휘부에 제한될 수는 없는 것 같다. Przepiórkowski (1996a)는 폴란드어에서 소위 말하는 부정의 소유격(Genitive of Negation)과 수많은 구에서의 격형태를 다루었다. 부정의 소유격이 격부여에 대한 엄밀한 어휘주의적 접근법에 반대하는 논증을 제시하였다

(18) a. Janek lubi Marysie /*Marysi
$John_{nom}$ likes $Mary_{acc}$ /$Mary_{gen}$
'John likes Mary.'

b. Janek nie lubi Marysi/*Marysie
$John_{nom}$ NM likes $Mary_{gen}$ /$Mary_{acc}$
'John doesn't like Mary.'

(18a)에서 lubić 'like'는 정상적으로 대격 목적어와 함께 나타나고 소유격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동사가 부정이 되면, (18b)처럼 목적어가 소유격을 취한다. 이 현상이 '부정의 소유격'이라고 불린다. 이처럼 폴란드어는 격부여에 대한 엄밀한 어휘주의적 접근법에 반대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또 다른 언어가 된다.

Bratt (1996)에 의하면 구조격(문법적)과 어휘격(의미적) 사이의 어떤 형태적 중복은 없다. 즉 주격과 대격은 한국어에서는 문법격인 반면에 여격 등은 의미격으로서 동사의 CONTENT 값을 제약한다. 그녀는 수동태의 주격과 대격의 교체와 기간 부사류를 통하여 한국어의 문법격 표지가 어휘적

일 수 없다는 풍부한 준거들을 제공하였다. 그녀는 Heinz and Matiasek (1994)과 다른 사람들의 것과 유사한 격원리를 제안하여서 형상성과 동사의 행위성에 의존하여 문법격을 주격과 대격으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요약하면 격부여란 어휘부에 제약될 수 없으며 일반적인 문법원리에 의하여 모형화(modelled) 된다. 격부여에 대한 이전의 HPSG의 접근법도 어휘격은 어휘부에서 구조격은 문법원리에 의하여 격이 부여되도록 하면서 구조격와 어휘격을 가정하였다. 이 접근법들은 이런 문법원리들이 DTRS의 수준에서 형식화되고 구구조 도식(schemata)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형상적이다.

3. 비형상적 격 이론

여기서 제시할 분석방법의 새로운 특성은 이 분석이 완전히 비형상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분석은 통사적 수형 형상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1 선행 연구의 문제점

이전 분석의 문제점 가운데 첫째로 형상성(configurationality)의 문제가 있다. Meurers (1999b)는 부정사 동사 또는 동사구와 그의 주어로 구성되어 있는 전치된 구성성분의 격을 살펴보면서 형상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19) a. [Ein *Außenseiter* gewinnen] wird hier nie.
an$_{nom}$ outsider win$_{inf}$ will here never
'An outsider will never win here.'

b. [Einen *Außenseiter* gewinnen] läßt Gott hier nie.
an$_{acc}$ outsider win$_{inf}$ lets God here never
'God never lets an outsider win here.'

전치된 부정사구가 하나의 구성요소이고 *ein(en) Außenseiter*가 형상적으로 *gewinnen*의 주어로 실현되었다고 가정한다면 Pollard (1994)와 Heinz and Matiasek (1994)의 형상적 격부여 접근법은 (19a)에서 주격과 (19b)에서의 대격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한다.

Pollard의 구조격 결정의 구조적 원리(Structural Principle of Structural Case Resolution)에서처럼 주격이 모든 실현된 주어에 부여된다면 (19b)에

서의 대격은 설명되지 못한다. 만약에 대격이 부여된다면 (19a)에서의 주격은 비문법적으로 예측될 것이다. Heinz and Matiasek (1994)의 격원리에서처럼 부정사 동사의 실현된 주어에 어떤 격도 부여되지 못한다면 그 격은 어떤 다른 비형상적 방법으로 부여될 것이 틀림없다.

비국부성(non-locality)의 문제점이 있다. 이전의 격부여에 대한 HPSG의 설명들은 본질상으로 국부적인 현상으로 간주되는 것 즉 핵어와 그의 의존요소 사이의 친밀한(intimate) 관계를 다루기 위하여 비국부적 기재를 이용하였다. 격원리들은 DTRS의 값에 대한 제약의 집합으로 기술되었다. 격부여는 핵어의 사격성 또는 문법기능 위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좀더 구체적인 견해가 표현되었다.

추출(extraction)과 관련된 문제점으로서, 추출에 대한 흔적 없는 접근법과 형상적 격부여 설명 사이의 부조화의 문제가 있다. 즉 추출에 대한 무흔적 접근법에서는 추출된 요소는 원래는 핵어의 SLASH 집합 속에 있었다. 이 요소가 ARG-ST에는 존재하지만 VALENCE 속성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주어나 목적어로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그대신에 추출된 요소는 Pollard and Sag (1994)의 HEAD-FILLER SCHEMA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Icelandic, 독일어와 영어와 같은 언어들에서 주격과 대격의 결정에 필요한 요소의 문법 기능 또는 정보는 가용 불가능하다.

흔적이 있는 추출은 흔적이 추출 위치에 국부적인 통사적 수형도에서 실현되고 Pollard (1994) 또는 Heinz and Matiasek (1994)의 것과 같은 격원리에 의하여 격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만들지는 않는다. 비형상적 격원리는 일반화가 문법에서 단 한차례 기술된다는 점에서 비잉여적(non-redundant) 이고 격부여의 장소가 한 곳이라는 점에서 동종(homogeneous) 이다.

접사화(Cliticization)의 문제점이 있다. Miller and Sag (1997)은 불어의 대명사성 'clitics'가 어떤 의미에서 통사적 구성요소가 아니며 그대신에 대명사성 접사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litics'는 결코 VALENCE 속성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형상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그러나 접사의 논항은 격부여에 관하여 다른 논항과 같은 행동을 취한다. 즉 접사의 논항이 직접목적어와 관련이 있으면 대격이 되고, 비인상 주어이면 주격이 되고, 하위의(lower) 동사와 관련이 있으나 상위의(higher) 동사의 목적어 위치에 인상되면 대격이 된다. 이는 대명사의 접사들이 격부여의 동일한 일반 원리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명사성 접사에 관한 형태통사적 정보가 전체 발화와 관련된 기호에 명세되는 유일한 장소가 핵어 동사의 ARG-ST 이다. 우리는 현행 HPSG의 가정들에 입각하여 ARG-ST가 격부여의 유일한 장소라고 주장한다.

3.2 비형상적 격부여

우리는 일반 문법원리를 통해서 부여되는 구조격과 특정한 핵어에 의해서 부여되는 어휘격의 분류를 가정한다.

3.2.1 격부여의 위치

격부여에 대한 이전의 HPSG의 접근방법들은 구조격을 갖는 핵어의 모든 의존요소들은 핵어의 국부적 형상에서 실현된다고 가정하였다. 즉 핵어에 국부적으로 연결된 추출된 요소를 위한 수형-형상적 위치가 있어야 한다. 또 대명사성 요소들은 형상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만약에 격이 DTRS에 부여될 수 없다면 격부여의 위치는 어디일까? 가능한 위치로는 아래와 같은 곳이 있다.

(20) a. DTRS: 이 속성의 값은 명사구 전체의 *signs*을 포함한다. 그들의 CASE 값도 포함한다.
b. VALENCE 속성(SUBJ, COMPS, SPR): 명사구의 *synsems*을 포함한다.
c. ARG-ST: 관련된 *synsems*을 포함한다.
d. SLASH: 어떤 명사구의 *local* 부분을 포함한다.

CONTENT는 격부여의 가능한 장소가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명사구와 관련된 속성들의 값은 오직 지표(indices) 이기 때문이다. DTRS는 격부여의 위치로 부적합하다고 거부되었고 SLASH 역시 가능한 후보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SLASH는 발화 속의 어떤 명사구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격이 VALENCE에도 부여되지 못한다. 이유는 흔적 없는 접근법에서 추출된 요소들과 대명사성 접사들 모두 VALENCE 속성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모든 이런 요소들과 관련된 *synsem*은 ARG-ST에 나타난다. ARG-ST가 현행 HPSG 가정과 부합하는 동종의 격부여 이론의 유일한 장소로 판명되었다.

한편 형상적 정보(Configurational Information)의 처리 문제가 남는다. 즉 ARG-ST가 구조격 부여의 유일한 장소라는 점과 앞에서 제시한 격부여에 대한 형상적 접근방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21) a. [Den Wagen zu reparieren] wurde versucht.
the_{acc} car to fix AUX tried

'It was attempted to fix the car.'

b. [Zu reparieren versucht] wurde der Wagen lange Zeit.
to fix tried AUX the$_{non}$ carlong time
'It was attempted to fix the car for a long time.'

어휘적으로 동사 *reparieren* 'fix'의 목적어에 올바른 격을 부여할 때의 문제는 이 동사의 수준에서 가용한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즉 동사 *reparieren*은 이 목적어가 결국에는 형상적으로 목적어로 실현될지 아니면 주어로 실현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3.2.2 격원리(Case Principle)

먼저 논항을 국부적으로 REALIZED로 표기한다. 유형 *argument*의 값으로 *synsem*-값의 ARGUMENT와 *binary*의 REALIZED이 있는데, 논항이 국부적으로 실현되면 +REALIZED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REALIZED가 된다고 가정한다. 다음은 유형 *argument*의 자질구조와 유형 *category*의 자질구조이다.

(22) a.
$$\begin{bmatrix} \text{argument} \\ \text{ARGUMENT} \quad \text{synsem} \\ \text{REALIZED} \quad \text{bool} \end{bmatrix}$$

b.
$$\begin{bmatrix} \text{category} \\ \text{VALENCE} \begin{bmatrix} \text{SUBJECT} \quad \text{list(argument)} \\ \text{SPECIFIER} \quad \text{list(argument)} \\ \text{COMPLEMENT} \quad \text{list(argument)} \end{bmatrix} \\ \text{ARGUMENT-STRUCTURE} \quad \text{list(argument)} \end{bmatrix}$$

ARG-ST에 논항을 실현하는데는 3가지의 방법이 있다. 항가 원리에 의하여, 어휘추출과 관련 있는 어떤 기재, 예를 들면 추출 어휘규칙에 의하여, 또 대명사성 접사화와 관련된 어떤 기재에 의하여 실현된다.

실현된 논항에 격을 부여한다. 주어진 언어에서의 격원리는 사격성 위계에 있어서 명사구의 위치, 지배 범주 등에 의존하여 국부적으로 실현된 명사구의 구조격 결정을 하는 일련의 제약들로 구성된다.

(23) Non-Configurational Case Principle (2nd version; German):

In a *word* of category *verb* if the initial element on ARG-ST is a

NP+[str], it has a CASE value of *snom, verb* all NP+[str]s non-initial on ARG-ST have a CASE value of *sacc, noun* ...

주의할 점은 격원리의 비형식적인 변형(version)이 단어의 대상물에 대한 제약으로 기술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특정한 어휘항목을 설정(positing)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반 문법적 제약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비어휘적 분석이다.

우리는 Grover (1995)처럼 영어는 어휘격이 없으며 *case*의 하위유형으로 2가지의 구조격 *nom*과 *acc*가 있다고 가정한다.

(24) Non-Configurational Case Principle (English):
In a *word* of category *verb* All NP+s non-initial on ARG-ST have a CASE value of *acc verb* if the initial element on ARG-ST is a NP+, it has a CASE value of *nom* if the verb's VFORM is *fin* or *base*, and a CASE value of *acc* otherwise, n*oun* ...

이 원리가 단어의 대상물에 대한 제약이지만 통사격이 어휘항목에서 직접 부여되지 않고 그 대신에 일반 문법적 제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Pollard and Sag (1994)의 격부여에 대한 어휘주의적 접근방법과는 다르다.

영어의 간단한 구문의 분석에 적용하여 보기로 한다.

(25) a. He (*him) likes her (*she).
b. He (*him) believes her (*she) to like him.

(25a)의 명사구의 CASE 값과 그들의 REALIZED의 값도 어휘부에 명세되지 않는다. 단어(word) *likes*는 핵어-보어 도식에 의하여 목적어와 결합하고, 그 결과의 구(phrase)는 핵어-주어 도식에 의하여 주어와 결합한다. (25a)에 상응하는 기호(sign) 속의 동사 *likes*에 대한 2가지의 구 투사가 있다. 이 둘은 수정판 항가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6) Valence Principle (modified):
In a headed phrase, for each valence feature F, the F value of the head daughter is the concatenation of the phrase's F value with the list of [REALIZED +] SYNSEM values of the F-DTRS value.

항가원리의 적용에 의하면 동사 *likes*의 COMPS 리스트의 명사구 원소를

[REALIZED +]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 명사구가 동사 *likes*의 ARG-ST 리스트의 2번째 요소와 구조공유하기 때문에 ARG-ST의 값은 이 지점에서 <NP,NP+>의 기술을 만족해야 한다. 격원리에 의하면 동사의 ARG-ST의 모든 첫 번째가 아닌 NP+ 요소들은 대격이고, 한정동사의 첫 NP+는 주격이어야 한다. 이는 동사 *likes*의 ARG-ST가 <NP+[nom],NP+[acc]>의 기술을 만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예문 (25b)에서 동사 *believes*의 3개의 논항은 *He believes her to like him*에서 형상적으로 실현되어 항가원리에 의하여 [REALIZED +]로 모두 표지된다. 2개의 NP+는 비형상 격원리에 의하여 주격과 대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like*의 목적어가 형상적으로 실현되어 항가원리에 의하여 [REALIZED +]로 표지된다. 반면에 주어는 *beleives*로 인상되어 그곳에서 대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like*의 ARG-ST의 REALIZED 값은 항가원리에 의하여 결정되지는 않는다.

Grover (1995)가 격부여에 대한 엄밀한 어휘주의적 접근방법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기 위하여 인용하고 그리하여 격부여에 대한 형상적 접근방법이 요구된다는 예문들도 비형상 격원리에 의하여 잘 설명이 된다.

(27) a. It would be possible for him (*he) to be promoted.
b. It was decided that he (*him) be promoted.
c. Him (*He) being promoted made us all glad.

(27a)의 *him*에 상응하는 명사구 *synsem*이 *to, be,* 그리고 *promoted* 모두의 ARG-ST에 존재하지만, [VFORM *inf*] 동사인 *to*의 ARG-ST에만 [REALIZED +]로 표지되고 격원리에 의하여 대격이 주어진다. (27b)에서는 *he*가 *be*와 *promoted*의 ARG-ST에 존재하지만 [VFORM *base*] 동사인 *be*의 ARG-ST에만 [REALIZED +]로 표지되고 대격이 부여된다. (27c)에서 *him*은 [VFORM *ger*] 동사인 *being*의 ARG-ST에서만 [REALIZED +]로 표지되고 대격이 주어진다.

영어의 추출구문의 분석에 적용하여 보기로 한다.

(28) a. Who/*Whom do you think ___ likes him?
b. Whom do you believe ___ to like him?

추출에 대한 흔적이론의 분석을 가정한다면 이 분석에 어떤 것도 추가할 것이 없다. 흔적은 형상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항가원리는 (28a)에서 동사 *likes*의 주어와 (28b)에서 동사 *believe*의 목적어를 [REALIZED +]로 표지

하고 격이 올바르게 부여된다.

그러나 흔적이 없는 이론의 분석을 가정한다면 추출된 논항은 어떤 다른 기재에 의하여 추출 위치에서 [REALIZED +]로 표지되어야 한다. 해결책은 이 기재가 추출된 논항을 [REALIZED +]로 표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보어 추출 어휘규칙과 논항 실현이 수정되어야 한다. 이 어휘규칙에 의하면, 단어의 COMPS 리스트에서 한 요소를 제거하고 그를 보상하는 요소를 SLASH 값에 첨가하는 방식이다. 이 어휘규칙은 *believe*의 기본 어휘목록에 적용되면 대격 목적어가 COMPS에서 이동되고 ARG-ST에서 [REALIZED +]로 표지 되면서 *believe*의 또 다른 어휘목록을 만든다. 이 어휘목록은 예문 (28b)의 분석에 이용되며 추출된 목적어는 추론에 의하여 *believe*의 ARG-ST에서 대격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에 보어 추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즉 흔적이 없고 핵어중심적이고 어떤 어휘규칙도 없는 이론이다. 핵어중심적이란 구가 SLASH 정보를 모든 딸에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핵어딸에서 상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어추출 구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매립구의 SLASH 값이 그의 핵어딸의 SLASH 값과 동일하다는 SLASH 상속제약(Inheritance Constraint), SLASH 값을 위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SLASH 합병제약(Amalgamation Constraint), 상위부문에서의 *head-filler-phrase* 제약이 필요하다. 이때 SLASH 합병제약은 논항구조 리스트보다는 DEPENDETS 리스트에 의하여 정의된다. 한편 보어 추출 어휘규칙이 제거되고 대신에 의존소 실현 제약(Dependent Realization Constraint)이 제안되었다. 이는 문법에서 어휘규칙을 제거하고 보어, 주어, 수식어 추출에 대한 일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의존소 실현 제약에 의하면 의존소 목록의 첫 번째 요소는 주어로서 실현되어야 하고, 의존소의 나머지는 COMPS 또는 *gap*으로서 실현되어야 한다.

Bouma *et al.* (1999b)의 흔적 없는 추출 분석을 가정한다면 아래의 논항 실현 원리가 필요하다.

(29) 논항 실현(Argument Realization):

$$\text{word} \left[\begin{array}{l} \text{SUBJ } [1] \\ \text{COMPS } [2] \bigcirc \text{list}\left(\left[\begin{array}{l}\text{argument}\\ \text{ARG gap-ss}\\ \text{REALIZED } +\end{array}\right]\right) \\ \text{DEPS } [1] + [2] \end{array}\right]$$

이전 이론의 문제점은 격은 최상위 ARG-ST의 논항에 부여되어야 한다

고 올바른 가정을 하였으나, 이 최상위 ARG-ST는 논항이 항가원리에 의하여 삭제되거나 추출되거나 대명사성 접사로 변하면서 실현되는 ARG-ST와 똑 같은 것이라고 잘못 가정하는 것이다. 2개의 문제의 경우는 후자의 가설이 위반되는 예들이다. 즉 통제된 주어는 결코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타나는 최상위 ARG-ST는 그것들이 실현되는 ARG-ST가 되지 않는다. 인상된 논항은 비록 그것들이 나타나는 최상위 ARG-ST의 위치에 기초하여 격을 받으나 중간단계의 ARG-ST에서 실현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찰에 의하면 비형상적 격원리가 수정되어야 한다. Meurers (1999b)의 통찰력을 받아들여 격부여에 있어서 실현정보 보다는 인상정보를 우선시하는 가정을 세우고자 한다. ARG-ST의 각 요소를 [REALIZED +/-]로 표지하는 대신에 그것을 [RAISED +/-]로 표지하겠다. 즉 ARG-ST의 요소가 상위의 ARG-ST에 나타나면 [RAISED +]가 된다. 격은 [RAISED-] 논항에만 부여된다. 먼저 통제된 주어는 상위의 ARG-ST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들은 [RAISED -]로 표지되고 격원리가 적용되어 주격을 부여한다. 둘째로 예문 (19)에서 *gewinnen*의 주어는 *gewinnen*의 ARG-ST로부터 실현되지만 상위의 ARG-ST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RAISED +]로 표지된다. 이 논항은 상위의 동사 *wird*와 *laβt*의 ARG-ST에서만 [RAISED -]로 표지되므로 그곳에서만 각각 주격과 대격이 부여된다.

이 새로운 비형상적 격원리는 이전의 격원리와 [REALIZED +]을 [RAISED -]로 대치하였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30) a.
$$\begin{bmatrix} \text{cat} \\ \text{HEAD verb} \\ \text{ARG-ST} < \begin{bmatrix} \text{ARG NP[str]} \\ \text{RAISED -} \end{bmatrix} > \oplus [2] \end{bmatrix} \rightarrow [\text{ARG-ST} < [\text{ARGNP[snom]}] > \oplus [2]$$

b.
$$\begin{bmatrix} \text{cat} \\ \text{HEAD verb} \\ \text{ARG-ST[1]nelist} \oplus < \begin{bmatrix} \text{ARG NP[str]} \\ \text{RAISED -} \end{bmatrix} > \oplus [2] \end{bmatrix} \rightarrow [\text{ARG-ST[1]} \oplus < [\text{AR NP[sacc]}] > \oplus [2]$$

ARG-ST의 한 요소가 직접 상위의 ARG-ST에 나타나면 [RAISED +]가 된다. 어떤 기호의 ARG-ST의 한 요소와 구조공유하는 ARG 값을 갖는 논항과 이 기호의 투사를 포함하는 ARG-ST가 있다면 이 요소는 [RAISED +]가 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포괄적(global) 제약을 제안한다.

(31) In an unembedded sign (i.e., corresponding to an utterance), for each *category* object in this sign with [HEAD [1]] and [ARG-ST [2]], for each element [3][ARG [4]] on [2], this element is [RAISED +] iff there is an ARG-ST containing an element with the same [ARG [4]] and containing also an element with the [HEAD [1]].

RAISED 값을 부여하는데 책임을 맡고 있는 원리는 개념적으로 REALIZED 값을 부여하는데 책임을 맡고 있는 원리보다는 훨씬 간편하다. 이 원리는 포괄적이지만 비형상적이어서 통사적 형상을 언급하지 않는다. 격원리 자체가 비형상적이며 국부적이다. 즉 원리가 범주에 대한 제약으로 기술되었으며 ARG-ST의 HEAD 값으로 지칭되었다. ARG의 값이 접사인 논항은 [REALIZED +]가 되어 격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가정하였으나 수정판에서는 접사 논항의 최상위 장소에서만이 [RAISED -]로 표지되고 여기에서만 구조격이 부여된다. 수정판 분석은 통제된 주어들에 주격을 정확하게 부여한다. 그들의 *synsem*은 상위의 ARG-ST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RAISED -]로 표지되고 주격이 부여된다.

우리는 현행 HPSG의 가설들 내에서 격부여의 유일하게 가능한 위치는 ARG-ST 이라고 주장하였다. 만약에 Bouma *et al.* (1999b)의 구조(architecture)를 가정한다면 DEPENDENTS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통사적 수형-형상의 언급 없이 ARG-ST에 격부여가 가능하며 바람직한 격이론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구조격 부여의 분석을 정리하면 아래의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32) a. Heinz and Matiasek (1994)가 제시한 것과 같은 구조격과 어휘격을 구분하는 언어 고유(language-specific)의 유형 위계
b. *synsem* 값의 ARG와 *boolean* RAISED로 이루어진 ARG-ST의 요소의 약간 확장된 구조
c. 상위의 ARG-ST로 인상된 논항에 [RAISED +] 표기하고 다른 논항에 [RAISED -]로 표기하는 원리
d. ARG-ST의 [RAISED -] 요소에 격을 부여하는 실제의 언어 고유의 격원리

이런 접근방법의 몇 가지 두드러진 장점을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33) a. 일반성(generality): 이 접근방법이 다양한 언어의 광범위한 자료에

적용될 수 있다.

b. 모듈방식(modularity): 이 접근방법이 논항 실현의 다양한 분석과는 독립적이다. 특히 이 방법은 혼적과 무혼적의 문제에 대하여 직교(orthogonal) 하고 접사화로서의 Romance 접사화의 분석과 일치한다.

c. 개념적 일관성(conceptual coherence): 격부여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문헌에서 발견된 다양한 개념적 공준(postulates)을 만족시킨다. 즉 비형상적이고 어느 정도는 국부적이다. 격부여는 사격성 또는 문법 기능의 위계에 기초한다.

d. 비잉여성(non-redundancy): 격부여 일반화는 문법에서 단지 한번만 명시된다.

4. 최근 동향

한국어는 첨가어이기 때문에 문장 내의 여러 문법적 정보가 명사나 동사의 어근/어간에 붙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의존적인 "소단위어"들에 의하여 표시된다. 이 소단위어의 연구가 한국어 통사 분석의 기초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의 형태론적 특성이 잘 밝혀지지 않아서 학자들이 제각기 가정을 세우고 통사 분석을 하기 때문에 분석 내용이 다양할 뿐 아니라 통일성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채희락(1999)의 주장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짚어보기로 하자.

이에 앞서 Cho and Sells (1995)에서는 명사성 접미사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34) a. Nroot - Postposition - Conjunctive - Delimiter (X-LIM) - Delimiter (Z-LIM)

b. Postpositions: dative (에게(서), 한테(서)), locative (에,에서), directive (에, (으)로), instrumental ((으)로), goal (까지), comitative (하고, (과)와), dative (hon.) (께), hon. subj. (께서)

c. Conjunctives: conjunctor (하고, (과)와), comparator (보다), disjunctor ((이)나), 'from' (부터), 'like' (처럼)

d. Delimiters: 'X-LIM': 'only' (만), 'even' (까지), 'even' (마저), 'even' (조차), 'only' (밖에), 'Z-LIM': TOPIC/FOCUS ((는) 은), 'also' (도), 'even' ((이)라도), NOM (이/가), ACC ((를)을), GEN (의)

한편 채희락은 한국어의 명사에 붙는 각종 소단위어들의 분포적 특성을

살펴 아래와 같은 순서를 정리하였다.

(35) a. 명사 - 후치사 - 한정사 - 격조사, 주제/대조 표지, -도
b. [Stem - Der Suffixes - Infl Suffixes] - Bound Words 1 - Bound Words 2 - Phrasal Affixes (채희락 (1991))

언어에 따라 접어의 종류나 접어와 구접사의 배열순서는 다르지만 순전히 단어 내적 요소인 어근/어간과 파생접사 및 굴절접사의 연결 순서는 언어 보편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후치사는 파생접사도 아니고 굴절접사도 아니라면 그것이 접어이든지 구접사가 된다. 세계의 여러 언어를 살펴 보면 접어의 존재는 아주 많이 입증되지만 구접사는 별로 많지 않다. 그리하여 후치사가 굴절어미가 아니고 접어라는 가정을 한다.

격조사의 형태론적 지위에 대하여 의견이 양분되는데 하나는 굴절어미로 분석하려는 학자와 접어로 분석하려는 학자가 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부분적으로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격조사는 굴절어미의 특성과 접어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채희락(1991)에서 격조사를 구접사라고 주장하였다. 격조사가 주어나 목적어 등 문법기능을 나타내는 단위의 가장자리에서 구현되는 구접사로서 분석되어야 함을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36) a. [철수와 순이]-가/를/의
b. *[철수-가/를/의]-와 [순이-가/를/의]

여기서 주어는 철수나 순이가 아니라 [철수와 순이] 전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격조사를 구접사로 분석하면 격조사의 이중적인 특성을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굴절어미 분석과 접어 분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무난히 설명할 수 있다.

똑같은 소단위어를 학자에 따라 굴절접사, 접어 혹은 구접사로 각각 다르게 가정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통사 분석에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기초 단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는 한국어 분석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격과 어순은 긴밀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영어는 빈약한 격 대신에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고정 어순 언어(fixed word order language)인 반면에 한국어는 격이 발달하여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자유 어순 언어(free word order language) 이다. 한국어에서 격은 주로 명사구에 붙어서 서술어와 일정한 문법적 관계를 갖도록 해 주는 표지의 하나이다. 격표지가 붙은 명사구는 문장 안의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의 문법적 기능을 나타낸다.

명사구가 위치에 상관없이 격표지로 기능을 나타낸다는 것은 어순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순이 고정된 영어의 예문과 어순이 자유로운 국어의 예문을 살펴보자.

(37) a. John loves Mary.
b. Mary loves John.

(38) a.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b. 영희를 철수가 사랑한다.

(39) a. 철수가 의사가 되었다.
b. *의사가 철수가 되었다.

영어의 예문 (37)에서 보듯이 두 명사구의 순서가 바뀌면 문법 기능이 바뀌게 되어 의미가 달라진다. 반면에 어순이 자유로운 한국어의 예문 (38)에서는 두 명사구의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는 동일하다. 그러나 예문 (39)의 경우에는 한국어가 완전한 자유 어순의 언어가 아님을 보여준다. 즉 두 명사구를 어순을 바꾸면 비문이 된다.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두 명사구가 동일한 격 표지를 가질 경우에 어순을 바꾸면 비문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Kuno (1980)가 교차제약(Cross-Over Constraint)[1]을 제시하였다. 즉 두 명사구가 모두 형태소가 동일한 문법 형성소인 주격 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순을 뒤섞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Chung (1988)은 이러한 명사구의 뒤섞기의 문제를 화용적인 요인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통사적 제약으로 설명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면서, Kuno (1980)의 교차제약을 대신하여 사격성(obliqueness)의 개념을 통합한 새로운 어순 제약(LP constraint)을 제시하였다[2]. 이 사격성 제약에 의하면 예문의 명사구 '철수가'는 사격성이 가장 낮은 주어이고 명사구 '의사가'는 보어로서 사격성이 주어보다 높다. 이 두 명사구는 서술어 '똑똑하다'가 취하는 공동 논항으로 동일한 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순 제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 사격성이 낮은 '철수가'는 사격성이 더 높은 명사구 '의사가'를

1 '일반적으로 중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커질수록 동일한 문법 형성소를 가진 두 명사구의 순서를 바꾸기가 어려워진다'는 뜻

2 Chung (1998)의 사격성 제약: Coarguments ("subject and complements" as opposed to "adjuncts") with the same case must be linearized in order of obliqueness, i.e., the less oblique one must precede the more oblique one. '사격성이 낮은 논항이 사격성이 높은 논항을 선행해야 한다'.

선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므로 비문이 된다.

한국어에는 두 명사구의 격 표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섞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40) a. 철수가 영희를 돈을 주었다.
b. 철수가 돈을 영희를 주었다.

예문에서 대격 표지를 가진 두 명사구가 '영희를'과 '돈을'이 동일한 격 표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순을 뒤섞기 하여도 정문이 된다. 이는 Kuno의 교차 제약과 Chung의 사격성 제약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Cho & Chai (2000)는 잠재격(Potential Case)과 실현격(Realized Case)을 제안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격을 NP[nom]과 같이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단원자적인 형태로 볼 것이 아니라 격을 복합체로 보아야 하며, 생물성의 개념을 명사의 자질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명사의 격이 2개의 자질 즉 잠재격과 실현격을 값으로 취하고, 이들은 다시 리스트를 값으로 취한다고 주장하였다. 잠재격은 하나 이상의 값을 취하는 반면에 실현격은 수의적으로 값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명사의 생물성을 나타내는 ANIMACY 자질을 포함하였다. 이 생물성 자질의 값은 명사구의 CONTEXT에 나타나는 값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 2가지의 어순 제약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두 명사구의 잠재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뒤섞기가 불가능하다는 '잠재격 제약'이 있고, 둘째는 두 명사구의 실현격-생물성의 값이 모두 동일할 경우에는 뒤섞기가 불가능하다는 '실현격-생물성 제약'이다. 이들의 주장은 예문 (39b)의 비문을 잘 설명한다. 즉 두 명사구는 잠재격의 값이 동일하므로 잠재격 제약에 의하여 뒤섞기가 불가능하고, 두 명사구의 실현격-생물성의 값 역시 모두 동일하므로 실현격-생물성 제약에 의하여 뒤섞기가 불가능하다. 또 이들은 예문 (40)의 뒤섞기도 잘 설명한다. (40a)에서 간접목적어는 잠재격으로 여격/대격이 가능하고 직접목적어에는 대격만이 가능하므로 잠재격 제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두 명사구의 실현격 값은 대격으로 같지만 생물성의 값이 다르므로 실현격-생물성 제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두 명사구의 뒤섞기가 가능하다.

부사류와 격표지의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41) a. 나는 자전거를 한시간을 타고 싶었다. (ACC-ACC)
b. 나는 자전거가 한시간이 타고 싶었다. (NOM-NOM)
c. 나는 자전거가 한시간을 타고 싶었다. (NOM-ACC)

d. 나는 자전거를 한시간이 타고 싶었다. (ACC-NOM)

부사류에 나타나는 -이/을 표지가 격표지 인가에 대한 견해들이 나뉜다. 오직 보어에만 격표지가 붙는다는 부류와 Kim & Marling (1997) 등은 기간과 빈도의 부사류들도 격표지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다. 위 예문은 우리에게 수식어의 어순 제약에 대한 재고와 격 교체의 설명을 요구한다.

(42) a. 철수가 영희를 한시간을 기다렸다.
b. 철수가 한시간을 영희를 기다렸다.
c. 한시간을 철수가 영희를 기다렸다.

대격이 표지된 수식어 '한시간을'은 논항인 주격 표지된 주어 '철수가'와 대격 표지된 '영희를'과 자유롭게 뒤섞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시간을 철수가 영희를 기다리라고 말하였다'의 어순의 의미와 '철수가 영희를 한시간을 기다리라고 말하였다'의 어순의 의미는 차이가 있다. 즉 수식어가 포함된 어순은 자신이 속한 문장을 벗어난 위치로 뒤섞기를 할 수 없다. Reape (1994)의 영역(domain)의 개념을 빌리면 수식어의 뒤섞기 가능성은 S 영역으로 한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격 교체의 문제들도 있다. -싶다 구문에서의 격 교체, 기간을 나타내는 부사류에서의 격 교체 등이 있다.

(43) a. 철수가 사과가/사과를 먹고 싶다.
b. 철수가 (사과를 먹고) 싶다.
c. 철수가 사과가 (먹고 싶다).
d. 그가 총리가 두 번이/*을 되었다.

예문 (43a)에서 두 번째 명사구가 주격 표지인 '사과가'나 대격 표지인 '사과를'의 격 교체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격 교체의 구문에 대한 분석으로 예문 (43b,c)처럼 논항 구조를 달리 설정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다. 반면에 예문 (43d)에서는 빈도의 부사류가 주격 표지를 가질 수는 있으나 대격 표지를 갖지는 못한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의 격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있을 수 있으나 더 깊이 있는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핵어중심 구구조 문법 내에서의 격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예문들을 잘 살펴서 그들의 특성을 가려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상응하는 제약들을 제시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명사류의 소단위어들에 대한 분류와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채희락. 1996. 한국어의 명사류와 범범주 '소단위어들.' [언어와 언어학 22], 297-315.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Bouma, G., Malouf, R. and Sag, I.V.. 1999. Satisfying Constraints on Extraction and Adjunction, Unpublished draft.

Bratt, E.O. 1996. *Argument Composition and the Lexicon: Lexical and Periphrastic Causatives in Korean.* Ph.D. thesis, Stanford University.

Chae, Hee-Rahk. 1991. The Morphologica l Status of Nominal 'Particles' in Korean. To appear in the Proceedings of the Santa Cruz Workshop on Korean Syntax and Semantics.

Cho, Sae-Youn and Myung-Hi Chai. 2000. Case, Animacy and Word Order in Korean. To appear in *WECOL 2000 Proceedings.*

Cho, Young-Mee Yu & Peter Sells. 1995. A Lexical Account of Inflectional Suffixes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4.

Chomsky, N.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 1-46.

Chomsky, N. 1986a.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Praeger, West-Cambridge, Mass.

Chung, C. 1998. Case, Obliqueness, and Linearization in Korean. *Proceedings of the FHCG-98*, pp. 164-178.

Grover, C. 1995. *Rethinking Some Empty Categories: Missing Objects and Parasitic Gaps in HPSG.* Ph.D. thesis, University of Essex.

Heinz, W. and Matiasek, J. 1994. Argument structure and case assignment in German, In Nerbonne *et al.* (1994) pages, 199-236.

Kim, S. and Marling, J. 1997. Case Assignment in the siphta Construc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Case on Adverbials. In Ross King (ed.) *Description and Explanation in Korean Linguistics,* pp. 141-179, Ithaca, New York: Cornell Univ. Press.

Kuno, S. 1980. A Further Note on Tonoike's Intra-Subjectivization Hypothesis.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 171-184.

Meurers, W.D. 1999b. Raising spirits (and assigning them case). To appear in T. Kiss and D. Meurers (eds.) Topics in Constraint-Based Germanic Syntax, *CSLI Publications.* Version of July 20, 1999. Miller, P.H. and Sag, I.A. 1997. French clitic

movement without clitics or movement.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5,* 573-639.

Neidel, C. 1982. Case agreement in Russian. In Bresnan (1982b), pages 391-426.

Pollard, C. 1994. Toward a unified account of passive in German. In Nerbonne *et al.* (1994), pages 273-296.

Pollard, C. and Sag, I.A.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hicago University Press, Chicago.

Przepiorkowski, A. 1999. *Case Assignment and the Complement/Adjunct Dichotomy: A Non-Configurational Constraint-Based Approach.* Ph.D. thesis.

Reape, Michael. 1994. Domain Union and Word Order Variation in German. in J. Nerbonne, K. Netter, and C. Pollard (ed) *German in HPSG, CSLI lecture notes series, No. 46*: 151-197.

Yoo, E.J. 1993. Subcategorization and Case Marking in Korean.In A. Kathol and C. Pollard eds. *Ohio State University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2*: 178-198

Zaenen, A. and Maling, J. 1983. Passive and oblique case. In L.S. Levin, M. Rappaport, and A. Zaenen, editors, *Papers in Lexical-Functional Grammar,* pages 159-191.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Bloomington.

Zaenen, A., Maling, J., and Thrainsson, H. 1985. Case and grammatical functions: The Icelandic passive.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3(4),* 441-483.

동신대학교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252
520-714
전화번호: 061-330-3622
Email: kslim@dongshinu.ac.kr

접수일자: 2001년 2월 5일
게재일자: 2001년 4월 3일